

『周易參同契』와 주석서에 대한 書誌學的 연구

임명진¹ · 김병수¹ · 강정수¹ *

Study on bibliography of 『Zhouyi cantong qi(周易參同契)』 and the Book of Annotation

Im Myung-jin¹ · Kim Byung-Soo¹ · Kang Jung-Soo¹ *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oism is a very important subject that consists of oriental medicine(traditional east asia medicine). Among the many scriptures, The Zhouyi cantong qi (周易參同契, Token for Joining the Three in Accordance with the Book of Changes¹⁾) is the main Chinese alchemical scripture. This book is composed with three kinds of subject, Zhouyi(周易, the Book of Changes), the Huanglao(黃老) Tradition and alchemy(鍊金, 爐火).

The author's name is not signed but is concealed in the tex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account, the legendary Han immortal from Guiji (會稽, in present-day Zhejiang, 古 浙江), Wei Boyang(魏伯陽), wrote it in the period between Emperor Shun and Emperor Huan of the Eastern Han (126-127 BC), after reading the Longhu jing (龍虎經, Scripture of the Dragon and Tiger). Later he transmitted it to Xu Congshi(徐從事), who appended a commentary, and to Chunyu Shutong(淳于叔通), who first circulated it in the world. While some features of this account provide significant details - especially about the reputed date of the text and about its formation having taken place in stages - the received Cantong qi(參同契) actually is not the product of a single generation of authors, but the result of several centuries of textual accretions as well as theory of three co-authorship by Wei Boyang(魏伯陽), Xu Congshi(徐從事), Chunyu Shutong(淳于叔通). It has over 6000 characters in four-word or five-word verses. Some parts of the book are in styles of prose and poem.

Many scholars explain the title "cantongqi(參同契)", saying that "Can(參)" means three, "Tong(同)" means correspondence, and "Qi(契)" means unification. Through images of hexagrams of the Book of Changes, the book illustrates the thought of the Huanglao(黃老) Tradition and alchemy. Wei Boyang(魏伯陽) theorizes his own experience unifying the way of intercourse of Yin and Yang in the Book of Changes, the cultivation of spirit through spontaneity of the Huanglao(黃老) Tradition and the elixir refining of alchemy.

Key words : Zhouyi cantong qi (周易參同契), cantongqi(參同契), Wei Boyang(魏伯陽), Huanglao(黃老), alchemy (鍊金, 爐火).

I. 서론

한의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학설 중에 중요한 요소가 도가사상이다. 이는 『황제내경』의 양생론과 황노사상²⁾, 『신농본초경』의 연년의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접수일 : 2011년1월16일 게재확정일 : 2011년2월8일

1) 『The Three Ways Unified and Normalized of the

Book of Changes』 can be possible.

수, 불노장생설 등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⁴⁾. 이러한 도가적 경향은 『동의보감』⁵⁾을 통해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된다. 실제 단전호흡은 현대인의 운동법 또는 명상법으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전호흡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또한 고대 조선의 단군사상과 중국의 도가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다. 한의학이 현대인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치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듯이 도가사상의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행법들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교와 도가사상, 선도수행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선진시기 이전의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서적으로 『노자 도덕경』, 『황정경』, 『주역참동계』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역참동계(이하 참동계)』를 연구하였다. 『참동계』는 동한 환제(146-167) 때의 인물인 위백양(魏伯陽)의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위백양이 자신의 수련체험을 바탕으로 성명(性命)을 닦는 길을 안내한 책으로서⁶⁾, 주석가들에 의해 ‘만고단경왕(萬古丹經王)’, ‘단경지조(丹經之祖)’ 등으로 불리며, 세계 최고(最古)의 연단 저작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⁷⁾. 『참동계』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이를 연구한 주석서도 다양하고, 여타 도가서적에 미친 영향도 컸다. 심지어는 유가의 역학이론에도 영향을 미쳐 유불선(儒佛仙)을 함께 닦는 삼도회통(三道回通)의 연구사조 또한 유행하게 되었다⁸⁾. 『주역참동계』라는 책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주역』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제목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한나라 시기의 상수역학이 다수 이용된다. 『참동계』에서 ‘參’은 ‘3’이라는 의미와 서로 참여하고, 간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同’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주역을 비롯한 여타학문이 통합됨을 뜻한다. ‘契’는 맺다, 합치한다는 뜻으로 ‘同’과 함께 통합적 학문관을 드러내는 의미를 가진다. 원대 유염의 『주역참동계발휘』 서문에 보면 “‘參’은 이 ○에 참여하는 것이요, ‘同’은 이 ○과 함께하는 것이고, ‘契’는 이 ○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 이것이 바른 도가 된다.”⁹⁾고 하였다. 이는 『참동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를 先天元氣와 상통하는 무극도(無極圖)에 비유한 것으로 통합적 학문관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조선조 『참동고』를 저술한 서명응은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이므로 복희의 선천역을 실한 『참동계』와는 맞지 않다 하여, 그저 『역참동계』라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역사상(大易思想)과 황노사상(黃老思想), 노화사상(爐火思想)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러한 사상적 계통은 『참동계』 85장 “대역의 정(情)과 성(性)은 각각 그 절도에 맞으니, 황노의 학을 연구하면 비교하여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노화(爐火)의 일은 진실로 근거할 바가 있는 것이므로 세 가지 도가 하나에서 유래하여 모두 같은 경로를 따라 나왔다.”¹⁰⁾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 속에서 수많은 주석서들이 탄생하였고, 각자의 수행과정과 학파, 전승연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해석은 원본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판본을 제시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원 저작자에 대한 이의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 이기훈. 한의학과 도교 내단사상에서 본 수승화강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 김희정. 황노사상의 천인상응관 연구 : 「황제사경」, 「관자」 사편, 「회남자」,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 282-283.
4) 이상인. 본초학. 서울, 수서원, 1981, pp. 3-4.
5) 성호준. 『동의보감내경편』의 도교사상 고찰.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13(1), 2000, pp. 254-267.
6) 이도경. 『주역참동계』에 나타난 역학사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3.
7) 박병수. 『주역참동계』 연구. 한국종교 제20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p. 74.
8) 유불선의 삼도를 회통하는 사조는 송대 이후의 내단학파인 장백단의 남종, 왕중양의 북종, 이도순의 중과가 대표적이며, 조선후기의 권극중 또한 유불선을 회통하는 관점으로 『참동계』를 해석하였다.

9) “參也者, 參乎此○也. 同也者, 同乎此○也. 契也者, 契乎此○也. … 是爲正道” / 『中華道藏』에 수록되어 있는 『周易參同契發揮』 서문. 『中華道藏』은 2004년도에 장계우(張繼禹)편저로 화하(華夏)출판사에서 발간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10) 大易性情, 各如其度. 黃老用究, 較而可御. 爐火之事, 真有所據. 三道由一, 俱出徑路.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역참동계』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을 먼저 시도하였는데, 『주역참동계』의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저자와 저작연대, 다양한 주석서의 분석과 견본목록을 제시하였다.

II. 본론 및 고찰

1. 『주역참동계』의 저자와 저작연대

『주역참동계(이하 참동계)』는 동한 환제(146-167)때 인물인 위백양(魏伯陽)의 저서로 보는 게 정설이지만, 정사(正史)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동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에는 없고, 『구당서(舊唐書)』(945년경)에 『주역참동계』 2권, 『주역오상류(周易五相類)』 1권이 위백양의 찬(撰)이라는 저술목록이 처음 나타난다. 실제 원본자체는 전해지지 않아서, 주석서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진대(晉代) 갈홍(葛洪: 283-343)의 『신선전(神仙傳)』과 후촉(後蜀) 팽효(彭曉)의 『주역참동계분장통진의(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 서문(947년)에 의거해서 대략적인 것을 살필 수 있다. 『신선전』에는 위백양이 『참동계』와 『오상류』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고, 갈홍의 『포박자(抱朴子)』 내편 제 19 「하람편(遐覽篇)」에도 「魏伯陽內經」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위진(魏晉) 이전에 지어졌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신선전』의 내용과 『포박자』의 『魏伯陽內經』만 가지고 확신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참동계』 속에 나타나는 역학사상을 통해서 시기를 유추할 수도 있다. 우선 위나라 때의 왕필역(王弼易)¹¹⁾의 영향을 받았을만

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러한 것은 왕필 이전, 즉 위진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전한(前漢) 시기에 성립된 경방역(京房易), 그중에서도 납갑설(納甲說)을 채용하고, 여기에 달의 변화를 더하여 월체납갑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경방의 납갑설은 『참동계』뿐만 아니라 우번(虞翻, 164-233)이 지은 『주역』 주석서에 나온다. 우연히도 우번과 위백양은 같은 고향사람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최형주¹²⁾는 우번이 『참동계』의 영향을 받아 이를 참고하여 주역을 주석하였다고 보았다. 우번과 위백양이 같은 시기의 인물이라면 동한 때의 실제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주역참동계분장통진의』 서문을 보면 『신선전』을 인용하여 “真人인 위백양은 회계(會稽) 상우(上虞)¹³⁾ 사람이다. …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서 『고문용호경(古文龍虎經)』을 얻어 신묘한 뜻을 터득하였다. 이내 『주역』을 요약하여, 『참동계』 3편을 지었다. 또 이르기를 미진한 것이 있어 다시 『보색유탈(補塞遺脫)』 1편을 지었으니 단경(丹經)의 깊은 뜻을 이어 펼쳤다. … 이를 은밀히 청주(青州) 서종사(徐從事)¹⁴⁾에게 보이니 서종사가 이름을 숨기고 주해하였고, 후한(後漢) 효제(孝帝), 환제(桓帝)때 그가 다시 고향사람인 순우숙통(淳于叔通)에게 전수하여 마침내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다.”¹⁵⁾고 하였다. 여기서 순우숙통은 후한 환제 때 사람으로 『수신기(搜神記)』, 『후한서(後漢書)』, 『회계선현전(會稽先賢傳)』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름은 익(翼)이고 숙통은 자이며 위백양과 같은 상우(上虞) 사람이다. 서주

역해설을 위진(魏晉) 현학(玄學)이라 하는데 『참동계』에는 그의 이러한 역 해석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12) 최형주해역. 주역참동계. 자유문고, 2001.

13) 중국의 옛 지명으로 지금의 중국 저장성(浙江省)이나 강소성(江蘇省)으로 보인다.

14) 이름은 서경휴(徐景休)이다.

15) 張繼禹(장계우) 편저.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 華夏(화하)출판사, 2004. “真人魏伯陽者, 會稽上虞人也. … 不知師授誰氏, 得『古文龍虎經』, 盡獲妙旨. 乃約『周易』, 撰『參同契』三篇. 又云未盡纖微, 復作『補塞遺脫』一篇. 繼演丹經之玄奧. … 密示青州徐從事, 徐乃隱名而註之. 至後漢孝, 桓帝時, 公復傳授與同郡淳于叔通, 遂行于世.”

11) 왕필(王弼)은 위문제 황초(黃初) 7년(226)에 태어나서 제왕(齊王) 가평(嘉平) 원년(249)에 죽었다. 자는 보사(輔嗣)이고, 『노자』, 『장자』, 『주역』을 아울러 연구하여 그 셋을 3현(三玄)이라 합칭하고, 이들을 근거로 『논어』를 해석하였다. 그는 상수역학을 배척하고, 의리를 탐구하는 의리학파를 열었으며, 이러한 역 해석에 노장사상을 도입하는 위진시대의 대표적인 역학자이다. 그의 도가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학적 주

현령(西周縣令), 낙양시령(洛陽市令) 등에 임용되었으나 후에 관직을 버리고 은둔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역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수관계는 첫째, 『참동계』의 저자가 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순우숙통의 실존이 확실한 만큼 『참동계』가 실제 후한시대에 실존했던 위백양에 의하여 지어졌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위백양만의 저술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상중하 삼편의 내용과 편제가 겹치거나 문장의 의미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문체에 있어서도 四言, 五言, 산문(散文)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 또한 그러하다. 마치 『상한론』의 강평본(康平本)에 15자, 14자의 구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문제는 후대에 『고문참동계』라는 일종의 편집본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¹⁶⁾. 특히, 남송시기에 태어나 원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유염(俞琰, 1258-1314)이 1284년에 지은 『주역참동계발휘(周易參同契發揮)』에서는 4글자로 된 사언구절은 위백양의 경(經)이고, 5글자로 된 오언구절은 서종사의 주(注)이며, 부(賦)나 산문으로 된 것이 순우숙통의 보유(補遺)인 삼상류(三相類)인데 각각 그 글 뒤에 각자의 서문이 있다고 보았다. 즉, 공저설(共著說)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당나라 때 저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음장생(陰長生)의 『주역참동계』 3권과 『주역참동계상편주(周易參同契上篇註)』 용자호(容字號)는 후대의 위작으로 평가받지만 서종사를 직접적인 저자로 삼고, 위백양은 서종사의 제자로서 『오상류(五相類)』를 지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주장을 제외한다면 다수 학자들은 위백양의 저술임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러한 근거중 하나가 바로 『참동계』의 마지막 16구절이다. “때를 따라 해로움을 없애고[委時去害], 산과 언덕에 의지하며[依托丘山] 텅 빈 곳을 돌아다니고[循遊寥廓], 귀신과 이웃하다[與鬼為鄰] 형체가 변하여 신선이 되었다[化形而仙]. 적막함에 젖어 소리를 들을 수 없고[淪寂無聲], 백세대를 걸쳐[百世一

下] 인간 세상에 내려와 놀고[遨遊人間] 날개와 깃을 펴서[敷陳羽翮] 동으로 서로 남으로 기운다[東西南傾]. 재액을 갑작스레 만나고[湯遭阨際]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일어나니[水旱隔並] 나뭇잎이 누렇게 말라[柯葉萎黃] 그 영화를 잃었지만[失其華榮] 착한 사람은 그 책임을 이어[吉人乘負], 편하고, 온전하게 오래 산다[安穩長生].”고 한 구절이다. 마치 신선의 경지를 노래한 시로 보이지만 유염은 이를 ‘魏伯陽’이라는 글자를 감춘 은어라고 보았다. 우선 ‘委’와 ‘鬼’가 결합하면 ‘魏’가 되고, ‘百’에서 ‘一’의 아래에 있는 것이 ‘白’이 되며 여기에 ‘人’이 결합되니 伯이다. ‘湯’에서 가뭄을 만나면 ‘易’이며 여기에 ‘阨’의 사이에 있는 것이 ‘β’이므로 합하면 ‘陽’이 된다는 것이다.

『신선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위백양은 귀한 집안 출신으로 도술과 양생을 좋아하였다고 하였다. ‘伯陽’이 노자의 호임을 본다면 황노사상에 심취한 연단수행가였다는 것이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 위백양의 이러한 이미지는 『주역참동계』가 주역(周易), 황노(黃老), 노화(爐火)의 세 분야를 종합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2. 『주역참동계』 주석서 분석

『참동계』는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단 서적이다. 장백단(張伯端)은 『오진편(悟真篇)』에서 ‘萬古丹經王’이라고 높였고, 이래로 주석서가 20여종이 넘는데 『四庫全書』에 6종, 『道藏』에 11종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유행한 주석서는 『주역참동계통진의』이고, 가장 상세한 것은 송말원초에 유염이 지은 『주역참동계발휘』와 청대 주원육(周元育)이 지은 『참동계천유(參同契闡幽)』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주희(朱熹)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인데, 주희 이래로 주석가가 더욱 더 늘어나 진치허(陳致虛), 진현미(陳顯微) 등은 『참동계』를 ‘聖經’으로까지 추앙하게 되었다.

『참동계』는 상중하 삼편이 기본이고, 다시 상편, 중편, 하편, 난사(亂辭), 정기가(鼎器歌), 보유(補

16) 김윤수. 한국 참동계학의 연원과 계보. 한국학논집 제26집, 1995, p. 221.

遺), 찬서(讚序)의 7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본이다. 한편 정기가가 보유 뒤에 놓인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이것 또한 『참동계』의 근본적인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본다. 주석가들은 이러한 편제를 지키기도 하고, 각자의 주석의도에 맞게 章의 수와 배치를 임의대로 교정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때에 이르러 『고문참동계(古文參同契)』라는 별도의 판본이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현대에까지 『주역참동계』와 『고문참동계』가 공존해왔다. 주석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따로 분류하여 표로 만들었는데 김운수의 「한국참동계학의 연원과 계보」¹⁷⁾를 주로 인용하였다

1) 『주역참동계』 건본 목록

제목	저자 시기	내용	출전
1 『周易參同契註』 3권	後漢 陰長生 (112년)	당대(唐代)의 가탁(假託)으로 본다.	정동도장
2 『周易參同契註』 2권 『正統道藏』 容字號	唐 無名氏	상편만을 상하권으로 나누어 주석하였고, 중하편은 빠졌었다. 상편만 전으로 본 듯 하다.	
3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 3권	後蜀 眞一子 彭曉撰, 947년	갈홍이 『참동계』와 『오상류』의 위백양저자설을 확정된 뒤 명대 이전까지는 공식 인정되었다.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讚序』와 팽효의 『後序』 등이 빠졌고, 『五相類』를 『三相類』로 기재하였다.	
4 『周易參同契考異』 2권	南宋 朱熹撰, 1199년	『고이』는 단독으로 유통되지 않고 『부록』에 섞여 동용된다. 원대의 학자 황서절(黃瑞節)이 편찬하여 1341년에 간행한 『朱子成書』에 수록되어 널리 퍼졌다. 『正統道藏』에서는 부록만을 취했다.	
5 『周易參同契註』 3권	南宋 儲華谷撰		
6 『周易參同契註』 『正統道藏』 映字號	南宋 無名氏撰	『통진의』와 같이 90장으로 분장하고, 『鼎器歌』가 권말에 있다. 『통진의』가 內外丹의 모호한 주석태도를 보인 반면, 내단적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容字號, 映字號의 구별은 정동도장에서 나누는 편명에서 유	

17) 김운수. 한국 참동계학의 연원과 계보. 한국학논집 제26집, 1995, pp. 210-211.

			래한다.
7 『周易參同契解』 3권	南宋 一子 陳顯微撰, 1234년		
8 『周易參同契發揮』 9권, 『周易參同契釋義』 1권	元 陽翕撰, 1284년	『발휘』뒤에는 『석의』가 있는데 교감기(校勘記)와 같다. 『발휘』에서는 명대 『고문참동계』의 연원이 되는 위백양, 서종사, 순우숙등의 『참동계』, 공저설, 四言, 五言, 散文이 다르게 지어졌음을 주장하였다. 정기가(鼎器歌)를 보색유탈(補塞遺脫)의 실체로 보고, 정기가 뒤의 보유(補遺)를 序라 하였다. 『참동계』한 권의 책에 大道 전반을 진술했으나 미비하여 뒤에 정기가를 서술하여 보충하고, 그 뜻을 더욱 밝혔다고 하였다.	
9 『周易參同契分章註』 3권	元 上子 陳致微撰, 1331년	상양자가 1331년에 『도덕경』의 서문을 썼으므로(『금단대요』권2) 그 시대 전후에 편찬된 것으로 짐작한다. 유염과 마찬가지로 정기가를 중시하여 정기묘용장(鼎器妙用章)으로 만들었다.	도장정화
10 『周易參同契集解』	1407년 明 成祖 命으로 편찬	『永樂大典』이라는 유서(類書)가 편찬되면서 『통진의』를 저본으로 진일자, 포일자, 전양자, 상양자의 4가지 주를 편입하였다. 장일표(蔣一彪)의 『고문참동계집해』에도 도입되었다.	
11 『參同契正疏略』 1권	明文 王 文疏撰, 1564년	1564년에 『참동계정문』을 편찬하였다. 상편은 기존 체제와 같으나 중하편을 통합하여 하편으로 삼고, 난사와 정기가로 하편의 글을 장식하였다. 유를 자서편이라 명명하여 편체제는 유지하였다.	도장정화
12 『周易參同契測疏口義』	明 潛西 陸星撰, 1569년	1569년에 『측소』를 편찬하고, 1573년에 『구의』를 지어 보충하였다. 체제는 대략 『분장주』와 같으면서 보유는 『발휘』를 따라 序라 하였는데, 그 序는 정기가의 序라 하였다.	
13 『參同契註』	南宋 青霞 克中撰, 1639년	상편 32장, 중편 25장, 하편 7장으로 도합 64장으로 나누었다. 『참동계』가 본래 연역(演易)의 책이니 분장(分章)도 64개의 수에 응한 것이라 하였다.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14 『參同契闡幽』 2권	清 雲道人 朱元育撰, 1669년	삼편의 머리글과 정기가의 위치를 원형과 다르게 바꾸었다. 상편과 중편은 상중하로 나누고, 하편을 일명 삼상류(三相類), 일명 보색유탈(補塞遺脫)이라 하면서 정기가, 난사, 보유로 구성한 것이 남다	도장정화

			르다.	
15	『周易參同契脈望』	清存陶素撰 1700년	장(章)대신 단(段)으로 나누어 상편 20段, 중편 16段, 하편 4段으로 총 40段이다. 단 아래에 주를 달아 단마다 뜻을 개괄하였다.	
16	『參同契吐註』	선萬 南九撰 1711년	남구만의 제자 최석정이 1712년에 제간한 『주자해주역참동계(朱子解周易參同契)』의 끝에 『참동계도주』로 실려있다. 朱子의 주석이 소략하다 하여 원문에 현토하고, 독자적으로 주석하다가 두 단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미완의 책이다.	
17	『參同契註』 1권	清李光地撰	위백양이 『참동계』와 『삼상류』를 지었다는 설을 따라 『참동계』의 상편을 『참동계』로, 중, 하편을 『삼상류』로 나누었다.	용존전집
18	『參同攷』	선命 徐撰 1786년	상편은 3장 9절로 나누어 三才와 九數를 상징하였고, 중편은 8장 24절로 나누어 8괘와 24절기를, 하편은 6장으로 나누어 乾의 육획을 상징하였다. 상편, 중편, 하편, 난사, 정기가, 五相類(복희, 문왕, 공자의 三聖易, 黃老, 爐火)등 6편 체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역괘의 六爻에 비긴 것이다.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19	『周易參同契正義』 3권 36장	元子 董撰 1788년	상편을 16장으로 나누어 2.8의 권을 상징하였고, 중편을 12장으로 나누어 세월의 도를, 하편을 8장으로 나누어 팔괘의 운용을 상징하였다. 모두 36장으로 하여 老陽의 수를 상징하였다.	도장정화

2) 『고문참동계』 견본 목록(8)

제목	저자 시기	내용
『古文參同契』 杜題	明 杜誠 1517년	『참동계』의 四言을 經으로, 五言을 서중사의 註로, 賦, 亂辭 및 鼎器歌를 순우속통이 보유한 三相類라 하였는데 명상을 통해 얻었다 하여 정사소득(精思所得)이라 하였다.
『古文參同契』 楊題	明 楊愼 1546년 경	석함(石函)에서 발견되었다는 전설이 만들어지면서 명대의 대학자 양신(1488-1559)이 이를 입수하고는 석함설(石函說)을 기정사실화했다.
『古文參同契』 沈題	明 沈津題 1567년	조선의 석함소득파인 이계(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수초(手抄) 자료집인 『자치록(資知錄)』에도 사입(寫入)되어 있다.
『古文參同契集解』 3	明 蔣彪	『고문참동계』에 眞一子, 抱一子, 全陽子, 上陽子의 주를 개편하여

권	撰 1614년	산입한 것이며 독자적인 주석을 달지 않았다. 이전의 古註를 『고문참동계』체제로 개편한 선구자이다.
3	清 仇鰲 兆撰 1704년	사언경문(四言經文)에 장수를 매기지 않은 채 18장으로 나누고, 오언전문(五言傳文)을 18장으로 나누어 총수 36장으로 역괘 36궁의 수에 합치시켰다. 보유는 대단부(大丹賦, 곧 亂辭)와 鼎器歌 두 장으로 구성되어 『주역』상하 2편의 뜻에 응하였다.
4	清 袁林 仁撰 1732년	본문 뒤에 註를, 註 뒤에 소소(小疏)를 달아 주소(註疏)형식을 취하고 있다.
5	조 선 徐命膺 徐題 1786년	1786년에 엮은 참동계학중서인 『參同攷』에 『상석(詳釋)』과 『석함참동(石函參同)』, 『고정참동(考亭參同)』을 수록하였다. 진주(箋註)가 분립되어 있지 않고, 經文에 산입되어 있다.
6	清 劉明 一撰 1799년	청대 북중 용문파의 11대 眞人인 오원자(悟元子) 유일명(劉一明)이 무명자(無名子) 옹보광(翁葆光)註와 上陽子註를 참고하여 지었다.
7	姜必孝 (1764-1848)	
8	조 선 復陽 姜獻奎 (1797-1860)	朱子の 『考異』와 朱元育의 『闡幽』를 편입하여 『고문참동계』체제로 개편하였다.
9	조 선, 張之疏 (1806-1858)	
10	조 선 松宅居士 魏士 魏士 1906년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첫머리에 양신(楊愼)의 古文參同契가 있고, 三相類의 後序 뒤에 송택거사가 병오년에 쓴 跋과 續跋이 있다. 상양자의 주가 줄렬하여 하나도 불란한 것이 없다고 혹평하였다.
11	조 선 無名氏 撰, 상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經文과 箋註에는 眞一子, 抱一子, 朱子, 上陽子, 楊愼의 주가 있고, 삼상류에는 靑霞子의 『註解』가 산입되어 있다.
12	조 선 宗陽 金撰, 상	조선말기, 일제시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종남거사(鍾南居士) 김종양이 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조에 권극중의 『참동계주해』의 해당 글을 머릿 주로 편입하였다. 인산가에 소장되어 있다.

3. 주요 주석서

1) 『주역참동계통진의』

오대(五代) 후촉(後蜀) 팽효(彭曉)¹⁹⁾의 것으로 『補塞遺脫』 1권이 부가되어 있고, 이후의 주해서

18) 김윤수. 한국 참동계학의 연원과 계보. 한국학논집 제26집, 1995, pp. 220-221.

는 대부분 팽효본을 따르고 있다. 팽효본을 따르는 주요 주해서로는 유염의 『주역참동계발휘』, 진치허의 『주역참동계분장주』 1권 등이 있는데 본 논문의 주해도 팽효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팽효본은 장을 나누어 주해하였기 때문에 『分章註』라고도 하는데 전체를 3권으로 나누고, 상권 40장, 중권 38장, 하권 12장으로 총 90장이다. 글의 첫머리에 네 글자를 가지고 각장의 이름을 대신하였는데 이는 『노자하상공주(老子河上公註)』의 분장형식을 본뜬 것이다.

2) 『주역참동계고이』

‘考異’라고 하여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고 사실은 주석서에 가깝다. 팽효본이 비교적 도교의 내단수련쪽에 치중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짙다면 주희는 시종일관 『주역』과의 연관성에만 관심을 두어 해설하였다. 유가 특히 성리학자들이 『참동계』를 보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참동계』가 송대 상수학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진단(陳搏)의 「無極圖」, 「先天圖」, 「太極圖」 등을 낳았고, 주돈이(周敦頤)의 「太極圖說」과 소옹(邵雍)의 「先天圖」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희가 뒤늦게 『주역참동계』에 몰두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¹.

주희는 책의 저자부분에 ‘공동도사 추흔(空同道士 鄒訥)’이라고 하여 자신의 성명을 감추고 도가적인 성격을 진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뉴턴이 실제 연금술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던 행적을 떠올리게 한다. ‘추흔(鄒訥)’을 파자(破字)해 보거나 같은 음의 다른 글자를 찾아보면 주희(朱熹)와 일치하게 된다. 또한, ‘空同道士’라는 말은 『장자』 「재유(在宥)」편에 등장하는 광성자가 살았다고 하는 곳으로 내단수련의 궁극의 경지를 이룬 말이다. 성리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그가 단순히 주역연

구만을 위해 이러한 은어를 사용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주역참동계발휘』

유염(俞琰: 1258-1314)은 남송시기에 태어나 원나라 초기까지 살았으며 1284년에 『발휘』를 찬했는데, 팽효본의 원문을 과감하게 뜯어 고치고 주희의 해설조차 삭제해버렸다. 또한 팽효의 서문을 신지 않았으며 스스로 여러 판본을 비교하고 교정하여 마침내 확정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의미를 해석하여 글자와 문구를 따라 일일이 밝혀 놓았으며 일반적인 대의도 함께 논술하였다. 동시에 광범위한 자료를 인용하여 『참동계』와 서로 비교하여 밝히고 증거로 삼았다. 주희 이전에 대부분 주해서들이 도교 연단술에 치중하는 것이었고, 주희가 『주역』과 관련된 부분을 끌어들이 자신의 학설의 기반으로 재개편하고 있다면, 유염은 완전히 유가의 입장에서 주석을 달았다.

4) 『주역참동계분장주』

1331년경에 진치허(陳致虛)가 찬했는데 스스로 ‘上陽子’라는 호를 쓰며 나이 40에 도를 배우고 신선연단술을 강론했다고 한다. 팽효본이 90장으로 나뉘고 앞 구절을 제목으로 한데 반해, 그는 전체를 35장으로 다시 나누어 각각 그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각장의 제목을 붙였다.

5) 『참동계주해』

권극중의 『참동계주해』는 유도회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불·도 삼교의 회통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회통을 토대로 내단사상을 보완하려 하였다. 외단이 아닌 내단이 선인에 이르는 바른 방법이라는 ‘내단주체론(內丹主體論)’, 내단수련의 원리와 『역』의 사상을 일치시킨다는 ‘단역참동론(丹易參同論)’, 내단에서 추구하는 선인의 경지나 불교의 부처의 경지가 서로 상통된다고 보는 ‘선불동원론(仙佛同原論)’, 선정의 수련과 내단 수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선단호수론(禪丹互修論)’ 등이 권극중의 『참동계주해

19) 眞一子, 자는 秀川이며, 五代 後蜀 永康人.

20) 위백양 원저. 주원옥 천유, 이윤희 역주. 참동계천유.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26.

21) 박지현. 『주역참동계고이』 소고. 장서각 제6집, p. 129.

』에서 서술된 주요 내용이다. 조선조에 편찬된 참동계 연구서적중에서 완성도 높은 최초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주해한 부분에 따라 내단화후를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눈에 띄고, 단어나 구절에 대한 세세한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내단수련의 요지를 설명하려 하였다.

6) 『참동계천유』

청나라 주원옥은 진진교 용문과의 도인이었으며 호를 운양진인(雲陽眞人)이라 하였다. 이윤희의 『역해참동계천유』가 출판되면서 많이 읽히고 있으며, 삼편의 머리글과 정기가의 위치를 바꾼 것이 특징이다.

7) 『고문주역참동계집주』

청나라 구조오(仇兆鰲)가 지었으며 자는 창주(滄柱), 호는 지기자(知幾子)이다. 『周易參同契脈望』의 도소사(陶素耜)와 친하여 『脈望』의 서문을 써주며 칭찬하기도 하였으나 『집주』에서는 고문에 대한 불신으로 비판을 적기도 하였다. 『집주』의 대상은 모두 17가이다. 彭曉, 朱子, 陳顯微, 俞琰, 陳致虛, 杜一誠, 徐渭, 王九靈, 藏一彪, 彭好吉, 陸西星, 李文燭, 甄淑, 陶素耜, 姜中眞, 尹太鉉, 仇兆鰲 이렇게 17명이다.

8) 『참동고』

서명응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한 경력을 누렸으나 정치적 역경 또한 많이 겪었다. 이러한 그의 상황들이 그를 내면세계에 침잠하게 하고, 이단도 포용하는 폭넓은 학문의 세계로 인도한 것으로 추측되며, 그의 말년의 문집을 보면 내단수련에 집중했던 기록들이 나타난다. 그는 철저한 상수학과로서 소옹의 학문에 매료되어 선천학을 평생 연구하였는데, 『참동고』의 구성도 六攷六卷으로 편성하고, 『易參同契詳釋』을 六篇으로 구성하여 『역』의 육효를 상징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서명응은 『참동계』가 외단의 용어를 빌려 내단을 밝힌 것임을 철저히 하였으며, 외단의 무용함을 강조하였다. 『참동고』는 권극중의 『참동계주

해』와 함께 한국 참동계학을 대표하는 문헌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한의학을 이루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도가사상과 연관하여 『주역참동계』의 저자와 저작연대, 다양한 주석서에 대해서 서지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주역참동계』는 주역과 황노사상, 노화(爐火)사상이 결합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연단 서적으로 동한 환제 때 위백양(魏伯陽)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2. 갈홍의 『신선전』, 『포박자』에서 위백양(魏伯陽)이 찬(撰)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원본 자체가 전해지지 않아 저작 및 실존에 논란이 많다. 『주역참동계』의 문체가 四言, 五言, 散文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백양, 서종사(徐從事), 순우숙통(淳于叔通)의 공저로 보는 견해가 있고, 『주역참동계』의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백양’이라는 글자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백양의 저술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경방 납갑설을 주장한 우번(虞翻)이 『참동계』의 영향을 받아 『주역』을 저술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위백양은 동한 때의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3. 『참동계』는 상중하 삼편이 기본이고, 다시 상편, 중편, 하편, 난사(亂辭), 정기가(鼎器歌), 보유(補遺), 찬서(讚序)의 7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본이다. 명대 때 『고문참동계(古文參同契)』라는 별도의 판본이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현대에까지 『주역참동계』와 『고문참동계』가 공존해 왔다.

4. 『주역참동계』에 인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역』과 『도덕경』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주역참동계』가 주역과 황노사상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주석서가 20여종이 넘는

다. 주석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후촉 팽효의 『주역참동계통진의』이고, 상세하고 세밀한 분석은 송말원초 유염의 『주역참동계발휘』와 조선조의 서명응의 『참동고』이며, 수련의 대의를 드러낸 것은 청대 주원육(周元育)의 『참동계천유(參同契闡幽)』와 조선조 권극중의 『참동계주해』이며, 가장 유명한 것은 주희(朱熹)의 『주역참동계고이(周易參同契考異)』이다.

참고문헌

1. 이기훈. 한의학과 도교 내단사상에서 본 수승화강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김희정. 황노사상의 천인상응관 연구 : 「황제사경」, 「관자」 사편, 「회남자」,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 282-283.
3. 이상인. 본초학. 서울, 수서원, 1981.
4. 성호준. 『동의보감-내경편』의 도교사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3(1), 2000.
5. 이도정. 『주역참동계』에 나타난 역학사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3.
6. 박병수. 『주역참동계』 연구. 한국종교 제20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7.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 『周易參同契發揮』, 『周易參同契考異』/ 張繼禹(장계우) 편저. 『中華道藏』. 華夏(화하)출판사, 2004.
8. 최형주 해역. 주역참동계. 자유문고, 2001.
9. 김윤수. 한국 참동계학의 연원과 계보. 한국학논집 제26집, 1995.
10. 위백양 원저. 주원육 천유, 이윤희 역주. 참동계천유.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26.
11. 박지현. 『周易參同契考異』 소고. 장서각 제6집.